

本草學者로서의 許浚

서울대 홍문호

1. 序 論

漢醫學은 三大分科로 大別할 수 있으니

- 1) 疾病治療에 있어서 皮膚, 筋肉 또는 內臟 등에 外科的인 穿刺에 依한 자극을 주거나 鬱血, 膿瘍 등에 대한 切開手術을 하거나 皮膚에 火熱을 加하는 針灸醫學
 - 2) 草根木皮 또는 石藥 등의 生藥을 配合하여 投藥함으로써 疾症을 치료하는 藥物療法 즉 湯液 (漢方)醫學
 - 3) 疾病治療에 應用되는 天然藥物에 關한 經驗的 知識을 集成하는 동시에 基原이 되는 植物, 動物 및 礦物에 대한 博物學的 知見과 單味로서의 藥效를 收載한 本草學的 세가지가 그것이다.
- 이 중에서 本草學은 科學 以前의 西洋에서의 藥物學인 *materia medica*에 該當되며 兩者 共に 現代科學的인 生藥學에 母胎가 되었다.

現代의 化學의 合成醫藥品이 새로운 醫藥品을 開發함에 있어서 能力의 限界點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本草學을 科學的으로 再照明함으로써 現代醫藥品 開發의 突破口를 찾으려는 試圖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趨勢에 있다. 이와 같은 때에 있어서 우리 民族이 과연 우리 스스로의 本草學을 發展시켜 왔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멀리 檀君神話 속에 中國의 本草學에도 收載되어 있지 않은 쑥(靈艾)과 마늘(蒜)이 나타난다고 하여 우리 固有의 本草學이 있었다는 說¹⁾ 또는 人蔘과 高句麗의 金屑이 當時의 中國에 傳해져서 重用되었다는 사실²⁾로 미루어 우리의 本草學이 獨自的인 發展을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찌된 사연인지 크게 發展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림이 그려진 本草書 하나도 찾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 결국 우리의 本草學은 中國 것의 換骨奪胎일 따름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本草를 鄉藥이라 하여 鄉藥崇尚의 운동이 高麗中葉부터 일기 시작하여 「鄉藥」이라는 名稱을 지닌 醫方書 또는 本草書가 적지 않게 刊行된 史實을 더듬어 보며 우리의 自主的인 本草學이 결코 없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우리 民族 獨自的인 醫學이란 自負心에서 「東醫」라는 말을 敢然하게 앞에 붙인 醫方書인 「東醫寶鑑」을 分析하여 볼 때 그 속에 들어 있는 湯液篇 3卷3冊이야말로 우리나라 本草學의 一大基本書인 동시에 우리나라 本書의 自主性を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東醫寶鑑의 著者인 許浚은 該博한 本草學者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같은 結論은 筆者 自身の 發掘이 아니고 金斗鍾의 「韓國醫學史」,³⁾ 李德鳳의 “韓國生物學史”⁴⁾ 또는 全相運의 「韓國科學技術史」,⁵⁾ 및 日本의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⁶⁾에서 이미 結論지

1) 普覺國師 一然, 「三國遺事」, 卷第 1, 紀異卷 第 1, 古朝鮮.

2) 宋 唐愼微撰, 「經史證類大觀本草」, 金屑條.

3)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

4) 李德鳳, “韓國生物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文化史大系」Ⅲ, 科學技術史, 1968, pp. 287-451.

5)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科學世界社, 1966.

위저 있는 것을 綜合하여 간추려 보았을 따름이다.

2. 東醫寶鑑의 獨創性

許浚이 우리나라 古今 第一의 名醫이고 그의 著書인 東醫寶鑑이 그의 이름을 不減케 한 우리나라 最高의 醫書이라는 經緯는 새삼스럽게 論할 나위도 없다. 東醫寶鑑이 우리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中國과 日本에서도 일찍부터 刊行되어 現在까지 계속되고 있어 그 聲價는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다.

三木榮은 李朱醫學에 全의으로 依存하고 있던 當時의 半島醫學이 許浚의 出現으로 明의 新醫學說을 宗으로 하고 이에 古今의 說을 演繹함과 아울러 半島醫學을 加味하여 實學的 精神으로 貫通統一하여 劃期的 醫學을 樹立하는 동시에 그의 具體化가 바로 東醫寶鑑이라고 極讚하였다.⁷⁾

그러나 東醫寶鑑이 宣朝가 내려 준 內藏方書 500卷 중 우리의 것은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醫林撮要의 3種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中國醫方書를 取捨選擇하여 集成한 著述이라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東醫寶鑑의 獨創性 與否를 論할 수도 있겠다. 즉 東醫寶鑑의 引用書를 보면 天王玉冊, 素問, 靈樞, 傷寒論, 病源候論, 千金方 등 基本書는 勿論, 宋, 元, 明의 主要醫書를 모두 망라하고 특히 明代醫書인 醫學正傳, 丹溪心法附錄, 醫林集要, 醫學綱目, 本草集要, 古今醫鑑, 萬病回春, 醫學入門 등을 重點적으로 인용하여 融合統一하여 編纂된 것이다.

許浚은 臨床家로서도 名醫일 뿐만 아니라 書誌學者로도 特出한 能力을 지니고 있어 이와 같은 尨대한 引用書들을 그의 經驗과 識見 및 實事求是, 功用實利의인 哲學으로 걸러내어 編纂한 것이기 때문에 東醫寶鑑 一部이면 前人의 繁雜多岐한 全醫書를 일일이 追求, 檢索할 必要가 없고 明細하게 悉皆理解할 수 있어 半島醫學뿐만 아니라 中國醫學에까지 至대한 影響을 미쳤다는 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東醫寶鑑의 獨自性인데 東醫寶鑑이 高句麗로부터 계승 발전되어 내려온 經驗治療方인 鄉藥方書들을 主體로 하여 中國의 漢·隋·唐·宋·元·明代의 醫書 중에서 臨床에 必要한 部分만을 重點의으로 綜合編纂한 것임을 우선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特徵을 理解하려면 먼저 序文에서 刊行意圖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中國의 醫方書가 모두 抄集, 庸瑣로 만족하지 못하니 諸方을 모아서 완전한 책으로 만든다.⁸⁾
- 2) 모든 疾病은 不攝生에서 생기므로 修養이 먼저이고 藥石은 다음 가는 것이니 諸方書들의 번거로운 잡다한 가운데서 要點만을 따낸다.⁹⁾
- 3) 우리나라에 國산약 즉 鄉藥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니 옳게 分類하고 鄉名을 併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활용하기 쉽게 한다.¹⁰⁾

또 內景篇 제 1卷 권두의 集例를 보면

- 4) 醫術을 배우려면 먼저 本草學을 습득하여 藥性을 익혀야 하는데 本草는 浩繁하고 諸家의 議論이 一致하지 않고 收載되어 있는 약일지라도 그 절반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약이니 그런 것을 가려서 利用하기 쉽고 멀리서 구해 올 폐단이 없게 한다.¹¹⁾

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3.

7) 前掲書, p. 194.

8) 「東醫寶鑑」序, 中朝方書皆是抄集庸瑣不足觀爾宜哀聚諸方輯成一書.

9) 同上, 人之疾病皆生於不善調攝修養爲先藥石次之諸方浩繁務擇其要.

10) 同上, 窮村僻巷無醫藥而夭折者多我國鄉藥多產而人不能知爾宜分類並書鄉名使民易知.

11) 「東醫寶鑑」, 內景篇, 卷之一, 集例

學醫先讀本草以知藥性但本草浩繁諸家議論不一而吾人不識之材居其半當撮取方今行用者只載神農本草經及日華子註東垣丹溪要語且書唐藥鄉藥則書鄉名與產地及採取時月陰陽乾正之法可易備用而無遠求難得之弊矣.

이와같은 편찬목적은 볼 때 中國方書라고 하여 金科玉條로 하는 것이 아니라 取捨選擇하고 藥物療法에 앞서 攝生法 또는 豫防法을 더 重視하고 藥品은 唐藥보다도 鄉藥을 中心으로 할 수 있도록 湯液篇을 우리 實情에 맞게 꾸민다는 意圖를 分明하게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東醫寶鑑」 편찬의 意圖는 역시 內景篇 卷之一 集例에서 王節齋의 말을 引用하여

5) 『東垣은 北醫라 하고 丹溪는 南醫라고 하였다. 醫에 南北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東方에 치우쳐 있으나, 醫藥의 道가 連綿하게 끊이지 않았은즉 우리나라의 藥도 또한 東醫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云云한 것으로 보아 그의 自主性이 躍如함을 알 수 있고, 그는 계속해서 또 『鑑이란 萬物을 밝히 비쳐 그 形態를 놓치지 않나니, 그러므로 元의 羅謙甫의 衛生寶鑑과 明의 龔信的 古今醫鑑이 다 鑑으로 이름한 것은 그 뜻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책을 펴서 한번 보면 吉凶과 輕重이 明鏡과 같이 밝으므로, 東醫寶鑑이라 이름한 것은 古人의 뜻을 思慕함이니라』¹²⁾ 한 것으로 보아 그의 編撰內容에 대한 自信이 滿滿함을 엿볼 수 있다.

다시 그는 集例에서

6) 『道家에서는 淸靜修養을 본을 삼고 醫門에서는 藥餌針灸로 다스리니, 이따므로 道는 그 精을 얻고, 醫는 그 粗를 얻음이라』¹³⁾ 한 것이라든지, 또는 身形章以道療症條에 『羅仙이 말하기를 옛날 神聖의 醫는 能히 사람의 마음을 고쳐서 미리 病에 이르지 않게 하였지만 지금의 醫者는 다만 사람의 病을 고칠 줄은 아나 사람의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니, 이는 본을 버리고 末을 쫓으며, 그 根源을 窮究하지 않고 그 支流를 다스림 같아서, 病이 낫기를 구하고자 함이 또한 어리석지 않으나』¹⁴⁾云云한 것이라든지, 또는 搬運服食條에 『養性書에 가로되 무릇 사람의 修養攝生의 道가 각각 그 法이 있으니, 대개 精을 損치 말고 氣를 耗치 말고 神을 傷치 말지니, 이 三者는 道家의 이른바 精을 온전히 하고 氣를 온전히 하고 神을 온전히 하라 함이 이것이니라』¹⁵⁾한 것 등으로 미루어 豫防醫學的 또는 心身醫學的인 主張을 強調한 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編撰의 目次와 內容說明에 있어서도 오로지 藥物의 秘方紹介만을 爲主로 하는 一般醫書와는 特異한 바가 있다.

著者인 許浚이 과연 이와같은 編撰意圖를 살릴 수 있는 經歷과 能力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 1) 許浚은 70平生을 內醫로서 忠誠스럽게 仕官하였으므로 學識이나 臨床經驗이 深奧豐富한 大家의 經歷을 지니고 있다.
- 2) 그는 宣祖 14년에 學醫로 出發하여 纂圖脈이 流傳된지 너무 오래되어 誤謬가 많아 醫科試의 講書로 不適한 것을 校正하며 새로운 「纂圖方論脈訣集成」 4卷을 完成하므로 우리나라에 適合한 診脈書로서 朝鮮末까지 우리나라 唯一의 準據脈書가 되어 있다.
- 3) 盧重禮의 「胎產要錄」, 任元潛의 「瘡疹集」, 世祖公撰의 「救急方」 등을 改訂補完하여 診解로 刊行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그는 正音 한글에도 能通한 國學者이며 그와같은 資質이 湯液篇의 藥物 644종에 대하여 종래 吏讀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로 된 鄉藥名으로 表示할 수 있었다.
- 4) 傳染症學 專門書인 「新纂辟瘟方」과 「辟疫神方」二書는 光海君 4年에서 翌年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猖獗했던 疫癘治療를 위하여 許浚이 命을 받들어 撰出한 書籍인 바 從來의 類書와는 完全

12)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集例.

王節齋 有言曰 東垣北醫也(中略) 醫有南北之名尙矣我國僻在東方醫藥之道不絕如線則我國之醫亦可謂之東醫也鑑者明照萬物莫逃其形(中略) 今是書披卷一覽吉凶輕重皎如明鏡故遂以東醫寶鑑名之者慕古人之遺意云.

13) 同上, 道家以淸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針灸爲治是道得其精醫得其粗也.

14) 東醫寶鑑, 內景篇, 卷一, 身形, 以道疾病, 羅仙曰, 古之神聖之醫能療人之心(中略) 今之醫者 惟知療人之疾而不知療人之心 是猶捨本逐末不窮其源而攻其流欲求疾愈不亦愚乎.

15) 同上, 搬運服食, 養性書曰 凡人修養攝生之道各有其法大藥勿要損精耗氣傷神此三者道家謂之全精全氣全神是也.

히 內容을 달리하여 正確하고, 科學的으로 編纂되고 있으며 發疹性疫病, 腸티푸스 등의 類別診斷을 밝혀 東洋은 勿論, 西洋에서도 傳染病의 類別診斷이 아직 混沌의 域을 脫皮치 못하고 있을 때 이와같은 專門書를 刊行할 수 있었음은 許浚의 銳利한 觀察力과 넓은 學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辟疫神方에서 猩紅熱에 該當되는 疾患을 痲疹 등의 類似疾患과 區別하여 許浚이 詳細하게 唐紅疫(唐毒疫)의 流行狀況, 病原, 症狀, 治療法을 記述하고 있음은 東亞의 疾病史上 特筆할 만한 價値가 있다.

許浚의 以上과 같은 經歷 및 實績과 東醫寶鑑 編纂의 目標로 미루어 東醫寶鑑이 단순한 中國醫方書의 書誌學的 集成이 아니라 獨創性 있는 우리 민족의 原典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期待할 수 있다.

3. 東醫寶鑑의 湯液本草

東醫寶鑑의 獨自의인 內容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醫說, 醫方 및 湯液本草를 網羅하여 記載事項의 出典 및 根據를 統計잡아야 하지만 本 論文에서는 우선 湯液本草에 對해서만 分析의 一端을 試圖하였다.

當時는 아직 李時珍의 本草綱目¹⁶⁾은 導入되지 않아 1613년 刊行된 東醫寶鑑에서도 引用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高麗中期 이후 大陸에서 渡來된 經史證類大觀本草(證類本草), (後에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이름으로 刊行되기도 하였다)가 우리나라의 本草學의 基準이 되어 왔으며 朝鮮末에 이르기까지 醫科試驗考講書가 되어 왔고 鄉藥集成方의 鄉藥本草도 證類本草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湯液本草에 收載되어 있는 1402種의 藥物(唐藥이 90種 包含되어 있음)은 當時 方今行用の 唐藥 鄉藥을 網羅한 것이며 證類本草에 나와 있는 性味와 主效를 記載하고 다시 新 明醫書인 「醫學正傳」, 「醫學入門」, 「丹溪心法附餘」, 「食物本草」 등을 根據로 하고 있다.

만약 東醫寶鑑의 湯液本草가 이와같은 原典만을 根據로 한 것이라면 獨創性을 論할 나위도 없겠으나 引用出處를 「俗方」이라고 표시한 記載가 90種의 藥物¹⁷⁾에서 發見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許浚 또는 當時 우리나라에서 通用되던 本草學의 知見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본다. 古今을 莫論하고 勢力圈의 影響力을 미치는 大國의 學說에 對해서 이와같은 俗說을 添加한다는 것은 靑單한 學的 所信과 根據가 없이는 至難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90종의 藥物에 對해서 添加한 俗說을 分析하면 名稱 및 基原에 關한 記載가 14件, 效用에 關한 것이 18件, 性狀에 關한 것이 45件, 鑑別法에 關한 것이 6件으로 되어 있으며 產地를 보더라도 世宗地理志 이후의 새로운 知見을 망라하고 있으며 오늘날 柳庚秀博士 등의 生藥의 資源調查研究¹⁸⁾의 產地와도 잘 符合되는 內容임을 볼 때 그 正確性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輸入生藥의 國產化를 위해서 甘草, 麻黃, 零陵香, 安息香 등의 移植試驗 結果들의 記錄은 지금도 生생한 感懷를 자아내게 한다.

16) 李時珍, 「本草綱目」(萬曆 18年, 1590년에 金陵本이 刊行됨)

朝鮮朝의 本草學이 오로지 「證類本草」에 의거하고, 이 책을 醫科試驗講書로 사용해 왔음에 反해 「本草綱目」은 朝鮮朝 後期の 英祖・正祖代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검토 이용된 정도이고 肅宗 38년(1712) 「稼齋燕行錄」의 所貫書冊 목록 가운데 本草綱目的 이름이 처음으로 들어 있다.

17) 90種藥物: 水部 1, 穀部 4, 人部 3, 禽部 3, 獸部 9, 魚部 10, 蟲部 8, 果部 5, 菜部 12, 草部 21, 木部 11, 石部 2, 金部 1

湯液本草外에도 單方에 約 30개의 俗方記載가 있으나 이 論文에서는 除外하였다.

18) 柳庚秀 外, 「輸出生藥의 資源調查研究」, 과학기술처, 1971.

이와같은 俗方記載 內容을 現代科學의인 事實과 對照하면서 細密하게 檢討하는 作業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博物學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소중한 資料가 얻어질 것으로 믿는다.

俗說이 記載되어 있는 藥物目錄은 다음과 같다.

石部：冷泉

穀部：豌豆，煮酒，梨花酒，豆腐

人部：口中涎及唾，婦人月水，人尿

禽部：鵝鵝嘴，竊脂，鵝鵝

獸部：麝香，牛肉，白馬尿，白狗尿，獺膽，獺肉，臘肭臍，貂鼠，黃鼠

魚部：青魚，比目魚，河狍，吞魚¹⁹⁾，八梢魚，小八梢魚，松魚，鱧魚，白魚，鮑魚

蟲部：白蠟，龜尿，石蟹，蟻蟻，蚘，烏蛇，土桃蛇，蝎

果部：橘皮，橙子皮，海松子，榧子，無花果

菜部：生薑，芋子，絲瓜，桔梗，胡葱，野蒜，渣芹，蘘荷，松耳，鹿角菜，木頭菜，白菜

草部：黃精，天門冬，甘草，麥門冬，羌活，藍藤根，薛荔，五味子，忍冬，麻黃，通草，蟲實，玄參，知母，蘘本，茴香，款冬花，零陵香，何首烏，²⁰⁾ 白附子，野茨菰

木部：吳茱萸，紫檀香，龍腦香，枳殼，安息香，海桐皮，練根，桐葉，無患子皮，楸木皮，白蠟²¹⁾

石部：滑石，烏古瓦

金部：水銀

東醫寶鑑이 出刊되자 當時의 日本의 本草學者들이 湯液本草에 注目하여

○東醫寶鑑湯液篇諺字和解(小田幾五郎譯)

○東醫寶鑑湯液篇藥名韓稱

○朝鮮藥名解(朴方貫撰)

○東醫寶鑑湯液和名(丹羽元機撰)

등의 書籍이 出刊되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湯液本草가 얼마나 重要視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4. 結 論

위와 같은 지극히 簡略粗雜한 考察만으로도 湯液本草의 獨自性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獨自의인 本草書를 著述한 許浚은 우리 本草學史上 가장 有能한 本草學者이었다고 斷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東醫寶鑑」編撰의 가장 主된 目的의 하나가 戰亂 後遺症인 백성들의 病苦를 救하기 위해서는 鄉藥의 活用으로써 疾病치료를 하는 우리의 醫方書가 必要함에 따라 本草知識의 統一과 鄉藥의 普及에 있었다고 斷言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런 見解 下에 湯液本草를 現代의 生物學 및 生藥學의 見地에서 再照明하는 研究가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바이다.

19) 大口魚의 國字인 「吞」字를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20) 何首烏의 鄉藥名을 「江原道名 은조롱, 黃海道名 새박불취」라고 한 것은 該博한 本草知識의 一端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 蟲部의 白蠟은 動物性인 蜜蠟의 一種이며 木部의 植物性인 것과는 同名異物이다.